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 1 ☎ 552 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신성중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

제5회 충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 200여명 확정

8월 13일(주일),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조직위원 전체모임

제5회 충현올림픽을 준비하고 진행할 대회 조직위원 200여명이 지난 8월 2일에 열렸던 8월 정기당회에서 확정됐다. 이번 올림픽은 전 교구를 1·4·12교구, 2·11·13교구, 3·5·10·14교구, 6·7·8·9교구의 4개의 팀으로 나누어 믿음, 소망, 사랑, 충성팀으로 이름을 붙이고 팀별로 모든 행동 및 경기를 실시하게 된다.

10월 3일(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게 되는 제5회 충현올림픽의 조직위원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각 분과별 모임을 통해 각 분과에서 각 개인의 임무 등을 부여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세부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조직위원 전체모임이 8월 13일(주일)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모이게 된다. 조직위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각 분과별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전교인의 화목과 협력일치하는 신앙공동체의 한 마당이 되도록하고자 하는 목표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충현올림픽이기에 가능한 한 새신자, 새가족, 태신자들을 많이 참여시켜 전교인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팀간 경쟁의식보다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적인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 명예 대회장 / 김창인 목사
- 고문단 / 원로장로 전원
- 대회장 / 신성중 목사
- 조직위원장 / 노광현 장로 지도 / 김찬곤 목사

기획분과 / 사업 전반의 계획, 기록, 예배, 재정, 경기종목, 시상

- 위원 / 김은호 김영개 김방진 강순용 임봉남 정정주
- 분과장 / 차신득 지도 / 김희수 한용관 박경한
- 기획부장 / 윤성철
- 부원 / 김단용 전승훈 김광호 전용돈
- 총무부장 / 임무천

재정부장 / 김광남
부원 / 심정례

경기분과 / 경기운영, 경기보조기구, 연락업무

- 위원 / 마성락 김차생 박인세 하대선 김재균 최명환
- 분과장 / 김재명 지도 / 현상민 장봉생 김동석
- 진행부장 / 김여순
- 부원 / 전홍열 황영일 진홍용 이동명 김영수
- 오인근 박덕양 이계인 이석영 김시주
- 이실호 김영달 엄균영 이부성 정정길
- 이인영

경기부장 / 이병욱

- 부원 / 최윤덕 김춘권 권명옥 박찬섭 장주석
- 강철형 최정남 황현철 엄복섭 윤해균
- 이광주 문경안 손종우 이인광 이지환

연락부장 / 강봉수

- 부원 / 김일주 박경열 김창국 김중선 김재춘
- 김철환 김상철 강희찬 조종민 이병두
- 조승철 박태진

심판분과 / 경기 심판, 경기 기록

- 위원 / 김정철 손동운 서일영 정운석
- 분과장 / 박승준 지도 / 정광욱 박정규 윤종일
- 심판부장 / 손경수 차장 / 이종섭
- 부원 / 황의만 원용철 안동현 박찬섭 임창식
- 양승길 박승길 박용기 정상수 정영덕
- 장석두 이신동 한홍연 신광철 양기수
- 황인주 배춘식 구재완 하동석 이승득
- 윤석현 이상해 정수일 강대주 정선현
- 이정관 이민호 이종원 김교동 이배근
- 홍문석 김경희 강준희 신준희 문 회
- 신재금 김영숙 김명숙 백정숙 조균실
- 김문정

기록부장 / 양종섭 차장 / 김영은
부원 / 박태근 정재용 이인수 주순희 이금호

동원분과 / 동원, 봉사, 음료수, 의료, 질서유지, 주변청소, 팀관리

- 위원 / 김의철 조선근 이병학 엄필성 강모용 송환창
- 김종구
- 분과장 / 강은원
- 지도 / 성봉환 장경철 윤삼중 교구 전도사 전원
- 동원부장 / 최대원
- 의료부장 / 조인재 차장 / 손 철
- 봉사부장 / 강 협
- 팀관리부장 / 박영식 차장 / 정쾌명

시설분과 / 경기장 시설, 음향, 녹음, 차량관리, 운반, 구매, 조달

- 위원 / 우기전 문홍구 이하영 안종욱
- 분과장 / 오진국 지도 / 이홍철 이종대 한근수
- 시설부장 / 오정현
- 부원 / 윤상언 김차철 유성남 하상구 최영인
- 차량부장 / 김영길 차장 / 이정우 이갑재
- 부원 / 차량부원 전원

홍보분과 / 행사, 홍보, 제작, 장내 방송, 표어

- 위원 / 송기홍 최성현 남진우 최무길 박인건 김인관
- 분과장 / 이종국 지도 / 조동원 김광국 최영찬
- 홍보부장 / 서동석 차장 / 이형수
- 제작부장 / 이 훈 차장 / 이승철
- 방송부장 / 정하우 차장 / 박성명
- 부원 / 유인순

조정분과 / 부서간 업무 조정, 대외업무

- 위원 / 이태규 이종석 박상준 이인상
- 분과장 / 윤명식 지도 / 김찬곤 조윤재 장우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부상환자에 대한 위로 전도 각 교구 여전도회에서

각 교구 한나,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부상당하여 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방문하여 자원봉사와 위로전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7월 10일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영동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강남 시립병원, 중앙병원 등 서울 시내 각 병원을 중심으로 각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사고 부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퇴원할 때까지 계속 방문하여 전도하게 된다.

베들레헴홀 전기 온돌로

교회는 지난 주간 어린이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아원의 방학을 이용하여 본당 1층 베들레헴홀(탁아부, 유아원) 바닥을 전기온돌로 공사하였다.

예신부 양가부모초청 공개강좌

예신부(부장 박인세 장로)는 오늘(9일) 오전 11시에 "결혼생활의 갈등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이진숙 사모를 강사로 부모초청 공개강좌를 갖는다.

그동안 8주 과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과 성경공부를 실시하므로 결혼전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예신부가 금번 양가부모초청

공개강좌를 통하여 결혼생활에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해결을 모색하려고 한다. 앞으로 8주 과정중 한주는 부모초청 공개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성경보급에 100만원 현금

선교위원회에서 지난 <주간충현>에 게재한 바 있는 이스라엘 거주 외국인들에게 보급할 성경구입에 관한 기사를 읽고 한 성도가 100만원을 현금했다.

10 2교구 소속 집사라고 익명을 요구한 이 성도는 금번 이스라엘 김주경 선교사에게 보낼 태국어, 루마니아어, 중국어 성경 구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현금했다.

앞으로 열릴 여름계절학교

- 청년1부 8.14~16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 장년1부 8.14~15 생활 속에 천국을 이루자
- 장년3부 8.14~15 생활의 자세가 문제다
- 영어교육부 8.14~16 Celebrating our Christian Independence
- 청년2부 8.21~22 인애의 삶

- 충현기도원 김동석
- 충현기도원 이한수
- 갈릴리홀 정남정철
- 충현기도원 로봉린
- 갈릴리홀 김지환



● 요한계시록 강해 46 ●

신천지의 복락

(계 22:1-5)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날마다 눈물과 한숨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망인 천국에 대해 살펴보고 힘과 위로와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1.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1)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될 그 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수정같이 맑은 강입니다. 이 땅의 강들처럼 중금속이나 공장폐수로 오염된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그 생명수강은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이 강의 근원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입니다(렘 2:13, 요 4:14, 7:38). 셋째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 말은 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4대 문화 발생지는 물론이고, 모든 역사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70%에서 75%까지가 전부 다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2) 본문에서 중요한 말은 '흐른다'라는 말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성격을 가진 것 중에 생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간직하려고만 하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나혼자만 간직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영적 고혈압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명의 말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마 4:4). 또 인간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육적인 갈증은 물을 마셔야 시원해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나 정신적인 갈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시원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회함도 물이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3)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수 강물을 마셔야 갈증

을 해소하고,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게 될텐데 도대체 어떻게 할 때에 생명수의 강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은 흐르는데 높은 데로 흐르지를 않아요. 물은 자꾸만 밑으로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생명수의 강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2. 천국에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본래 옛날 에덴동산에 있었으나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없어졌습니다. 죄를 범하면 죽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힙니다. 여기 열두이라는 것은 바로 택한 자의 수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열두 지파를, 신약에는 열두 사도를 택했습니다. 둘째로 열두 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힙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오래가지 않아서 싫증이 납니다. 그래서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해서 먹으면 별로 좋지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과실이 맺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종류의 과실이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증이 나지를 않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셋째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합니다. '소성케 한다'라는 뜻은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약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병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여름철이 되면 나뭇잎이 우리에게 그늘을 주고, 시원함과 안식을 주듯이 천국에서도 그늘처럼 되고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3. 새 예루살렘에서의 내면 생활

첫째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결과인데 천국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도들이 완전한 존재로서 그곳에 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좌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통치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는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신천신지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의 신랑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 정의가 하수같이 흐릅니다. 그가 통치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칩니다.

셋째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섬기는 일은 지긋지긋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존경과 사랑으로 섬길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이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service)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스피리추얼 서비스(spiritual service), 워십 서비스(worship service), 선데이 서비스(sunday service) 등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아주 큰 축복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번에 봉귀사고 이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누가 제일 보고 싶었느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식은 아무리 커도 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생각 안하고 있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보고싶은 분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 부모님이겠지만 천국에 가면 아마 하나님이 가장 보고싶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고, 아프고, 무서워서 앵앵 울다가도 얼마 얼굴을 보면 울음을 뚝 그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만 보면 다 뚝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봅니다. 얼굴과 얼굴

을 대하여 보듯이 주님을 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이름, 어린양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습니다. 옛날 종들은 주인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창녀들은 자기 이마 위에 자기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속을 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섯째로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밤'이라는 뜻이 나쁜 의미로, 불행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저기에는 좌악도, 환난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일곱째로 저희가(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안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남들이 다 불신하고 서로 의심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는 내가 어려워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신천신지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의 신랑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일본 단기선교사역을 마치면서 ▶

일본 땅에서도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주님

문혜원

<대학부 4년, 기쁜소식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일본의 영적 현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박 8일 동안의 짧은 선교 여행을 마치며 가진 마지막 날의 나눴는 시간은 이러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주신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의 선교 여행 중에 앓은병이 일어나는 기적이라든가, 수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앞서서 승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분은 우리 안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일본 땅에서도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본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 뼈뺀 준비과정 속에서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에 낙심하고 힘들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다가가기엔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멀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이눌했으며 언어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Worship dancing과 Hands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매체들에 익숙해진 그들의 눈과 귀를 통해 스며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작고 약했으며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고백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의 거리 하라주쿠에서 전도한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귀가 찢어질듯한 해비매탈식의 여러 악기 연주가가 이루어내는 굉장한 소음, 보기만 해도 입이 벌어지는 환란한 의상과 헤어스타일, 그들의 대담한 몸동작들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앗아가기에 충분했고 그 거리는 온통 세상의 악한 문화에 사로잡힌 듯했습니다. 그러한 풍경과 미치 그러한 사태(?)를 예상치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 자아내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모두들 당황하고 풀이 죽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바로 그때, 하라주쿠 거리의 어느 그룹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막강한 악기들을 준비한 재일 유학생들로 구성된 'Jesus Disciple'이라는 전도활동을 하는 우리 또래의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함께 하라주쿠 거리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뜨거

운 아스팔트 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 우리의 싸움에 앞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단기선교여행 7박 8일 동안에 우리가 행한 작은 일들과 함께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지면으로나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일본의 현실 특히 영적인 현실을 조금이나마 관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관찰할 때,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들의 영을 바로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던 선배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유명 백화점과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긴자, 신주꾸, 이케브그로를 다니면서 단지 그들의 높은 경제력과 엔화의 위력에 놀라고 있기만 해서는 안되며 영적인 눈을 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생활 뒤의 곤핍한 영적현실을 바로 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아사쿠사라는 사원에서 헛된 우상 앞에 동전을 던지며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비는 그들의 모습, 소원을 적은 종이 쪽지를 매달아 놓는 모습들을 보며 일본이 자랑하고, 그들이 누리는 번영의 기반이라 생각하는 정신세계의 크나큰 약점 참 진리를 모르는 것을 보는 것 같았고, 영적인 바로섬이 없이 누리는 외적인 풍요가 과연 축복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모래성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적 부국임을 자랑하면서도 영적인 공허함에 또는 관습적으로 사원이나 마을마다 자리잡은 신사를 찾는 일본인들은 보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충만해져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일본과 일본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송균호 목사님과 일본인 테라다 목사님의 선교 특강을 통해서 일본 선교가 왜 어려운지 또 한국 선교사들의 필요와 기대에 대해서, 일본 기독교의 역사와 일본인들이 왜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됨으로써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불합리한 편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에노 공원 내의 동경 국립박물관을 둘러보다가 거기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영에 몹



시 화가 났고, 이해보다는 미움이 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생각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도 있었던 아픈 역사를 인해 기도할 수 있었고 일본의 영적침체를 안타까와하며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인근 지역에 전도지를 돌리면서 우리의 몸짓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요요기 공원에서, 하라주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Worship Dancing, Hands와 주로 사영리를 전하는 일대일 개인전도, 우리가 들었던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 열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복음에 빛진자'로서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작은 거자씨 한 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넷째, 우리 대학생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지상명령을 짧은 시일이었지만 직접적으로 수행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접해봄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막연했던 선교에 대한 생각과 기도제목들이 실제로 일본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는 그 과정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겠습시다'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보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함께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눈부신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물론 자랑스럽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라다 목사님의 특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토양이 좋았든지, 시기가 적절했었든지 하는 이유외에도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다가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 핍박 받으시고 순교당하시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이 땅을 적셨던 것을 압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그 열매를 즐기만 했을 뿐 다시금 열매 맺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이 불의에 대항해 진리를 지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진리를 전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갈 때보다 더 많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본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학업에 열중하며 그 일에 참여하며 애쓰는 유학생들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본인들의 영이 열리어 그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그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편안하게 여지길 위하여.....

1박 3일의 재미있는 여름성경학교

신혜원

<초등4부, 사랑헌터>

여름성경학교 때 나는 무척 많이 깨달았다. 첫째날에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의 율동과 찬양을 하였다. 또 예배시간에 들은 성경말씀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또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즐거웠다. 이로써 첫째날은 막을 내렸다. 둘째날은 교회에서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을 가져가야 되었다. 교회에 가서 첫째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또 천로역정을 하였는데 첫째날은 관문은 전도의 문이고 두번째 관문은 기도의 문이었다.

또 환난의 문과 승리의 문 등 여러 문에 들어 갔다가 나온 다음 난 여러 가지를 깨우쳤다. 지옥의 문에서는 나의 잘못을 뉘우쳤었고 승리의 문에서는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그 다음 문마다 여러 가지를 깨우쳤다.

또 회개의 밤에서는 나의 솔직함을 털어놓을

때에 마음이 가벼웠다. 나는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토·막·소·식

◆ 영아부는 '95 예수사랑 큰잔치 때 새친구 초청잔치에 학부모를 전도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1등 상 박은영 학부모, 2등상 황승현, 김종일 학부모, 3등상 서한결, 정미숙, 김진중, 김남이 학부모이다.

◆ 유치부는 8월 20일(주일)에 성경 퀴즈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 초등4부는 방학기간 중에 잠언 1장부터 31장 전장을 써오기로 했다.

◆ 중등1부는 찬양대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관심이있는 사람은 8월 16일(수) 12시 30분까지 교육관 301호로 오면 된다.

◆ 중등3부는 7월을 장기결석생 심방의 달로 정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방하고 권면하여 잃은 양을 교회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있다.

◆ 장년3부는 7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2차 부흥기간으로 정하고 장년3부에 출석 가능한 전도대상자 123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 소망부는 8월 27일(주일)에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위해 준비중이다. 지정 곡은93장, 502장, 539장 중에서 1곡을 택

하여 부르면 된다. 여자 한 반과 남자 두 반이 한 조를 이루어 열심히 준비중이다.

◆ 할렐루야 찬양대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토요일연습을 쉬기로 했다.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참된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경력직 : 여 O 명

① 여상고를 졸업 및 졸업예정자

② 나이 : 19~21세 정도

영상직 : 남 O 명

① 비디오카메라 촬영, 편집 유경험자

② 나이 : 20~23세 정도

자격 및 제출서류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직원 복무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제출처 : 총현교회 사무국(☎ 552 8200, 교 402)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8/30(수) 까지 '95 여름휴가
· 신성중 목사 : 8/8(화) 기독교 유선 T.V방송 이사회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총현의 교회학교가 여름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8. 삼풍백화점 붕괴로 슬픔을 당한 가정과 폭우로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예수님을 좇아 저희도 날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는 삶이 되기를 기도 드리면서 기쁜 소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입고 있는 Centro de Vida교회가 8월초에 새 성전 입당을 위하여 한 달을 특별 기도기간으로 하여 각 개인들의 삶을 점검하며 왕되신 예수님의 치리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팀별로 인원 보강과 특별훈련 및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 위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조직중에서 교사와 Soldado de Cristo들이 팀을 이루어 15지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을 담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주일 오후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각 담당 구역에 가서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직접 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한 구역은 Cerro Lambare라고 하는 조그만 산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꼈던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과 1년전까지만해도 원주민 동역자가 없으면 못하던 심방을 지금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서투른 언어와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로 들어주는 원주민들의 친절을 보며 저보다 앞서 가신 성령님의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영상기온이긴 하지만 추운 겨울 바람이 부는데도 그들은 제대로 바람을 막을 온전한 집이 없습니다. 나무 판자나 베닐이 시멘트 벽을 대신하는 집이 허다합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추운 주일날 여름용 얇은 옷이나 바지를 입고도 교회에 가려고 제 품으로 달려와 좋아서 깔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파라과이 오경희 평신도 선교사



1년전까지만해도 원주민 동역자가 없으면 못하던 심방을 지금은 혼자서도 감당

이 나라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속임수와 도적질을 서슴치 않고 있음을 보면서 어둠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복음임을 느낍니다

바치고 계신 교장선생님의 삶과 몇몇 신실한 학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렵게 시작한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파라과이는 사탄 숭배의 열풍으로 집을 치며 사탄을 부르고 무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심한 경우 자살까지도 서슴치 않고 하는 게임이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을 파서 시체와 성행위를 갖는 사탄숭배 집단이 생겨나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통일교 문선명이 이곳에 제주도의 7배 정도되는 땅을 사서 대대적인 통일교왕국 건설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일부 몇 은행에서 현금을 수백억씩 횡령한 것이 발견되어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꺼려할 뿐 아니라 인출현상이 발생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한 이 나라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속임수와 도적질을 서슴치 않고 있음을 보면서 어둠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복음임을 느낍니다. 강한 자나 부한 자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중언으로서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함께 동역하고 있는 온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
2. 정전 마무리 공사와 8월초 입당예배를 위하여
3. 딸은 사역을 위해(Worship Dance 팀, 어린이 찬양팀, 어린이 심방팀)
4. 건강(허리, 다리)이 빨리 회복되도록
5.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위하여



▲ 사진 / 그리스도의 정병 호랑이팀과 함께. 가운데 오른쪽이 오경희 선교사

충정충 뛰어대는 아이들을 볼 때 어찌나 감사한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요?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출고 가난한 그들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공공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친히 기르시고 먹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구역 담당제도로 인하여 주일학교 예배는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시작 전 찬송시간부터 율동팀과 어린이 찬양팀이 리더를 하면 교사리 같은 손을 높이 들어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직 새성전 완공이 되지 않아 천막 밑에서 바깥을 막으며 예배를 드리지만 300여 아이들의 찬송과 기도소리로 인하여 찬 바라는 마음 곳을 잃고 맙니다.

주님의 섭리로 시작한 학교가 이제 기말을 맞이하여 겨울방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파하는 시험기간을 이용해, 수업 후 한시간씩 학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카톨릭국가에서 복음의 전례를 몰라 방황하는 아이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주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교육에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행생을